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3월 24일(금)
(윤력 2월 3일)
Пятница
24 марта 2023г.
№ 11 (1202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날로 기념한다. 이날을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등을 비롯해 모든 문화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인 명절로 기린다. 문화 및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 명절을 쉰다.

사할린 동식물원에서 트랙터 운전기사로 일하는 김영남 씨도 역시 이날을 명절로 여긴다. 그는 이곳에서 이미 10년간 일하고 있다. 성실하고 좋은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는 2022년에 유즈노사할린주 두마의 감사장을 포상으로 받았다. 그 전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일하면서 많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다. 네웰스크 출신인 그의 전공은 전기기술자이다. 동식물원에 입사하면서 직업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물원 동료들도 마음에 들고, 동물과도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 (취재: 이예식 기자)

존경하는 사할린주 문화계 종사자 여러분

문화분야 근로자들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조국과 세계 문화유산 보전과 미학적, 도덕적 인간 육성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널리 지역 주민들과 예술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술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생활이 다채롭게 빛나는 공연과 연극, 전시회, 영화상영으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즈 100주년 기념 사할린 축제에는 세계적으로도 명성 높은 스타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사할린 섬' 제호브 책 박물관에서 열린 <크루젠 슈테른. 세계 이모저모> 전람회에는 13,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국민 문화유산의 해'의 일환으로 열린 민속예술 축제에는 주내 15개 지역에서 6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연합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 연방 수준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할린의 대표들은 <2022년 음악예술 분야의 우수 교사들>

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할린주 주민들 각자가 문화를 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최신 장비를 문화기관에 보급하고, 문화기관 사업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웰스크 중앙 아동도서관 안에 새로운 차세대 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 영화관 개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가무 아카데미가 개설됐습니다.

향후 계획상으로는 사할린의 유명 및 신진 미술가들이 작업하며, 작품을 발표하는 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화 분야의 종사자들과 원로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작에 새로운 성과와 영감,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하며

문화계 종사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정부, 사회적 의무 이행,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경제지원 명목으로 추가 자금 배정

사할린주 의회 의원들이 2023년과 2024년-2025년 계획 기간을 위해 사할린주 정부가 마련한 예산 계획 변경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재정안의 지출 부분은 489억 루블리가 증가한 2천27억 루블리에 달한다. 주 국고자금의 지출 증가는 필수적인 자금으로 책정되었다.

2023년에는 사회적 지원에 62억 루블리가 추가로 배정되며, 교육 분야에는 60억 루블리, 보건 분야에 53억 루블리가 배정된다.

"우리가 마련한 변경안은 주요 사회적 항목이며, 이 자금으

로 공공 분야 직원들의 임금 지급, 주민 지원에 따른 전 지역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존 공공 요금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년간 우리는 노후주택에서 생활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해 270억 루블리라는 전례없는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은 이를 명목으로 146억 루블리로 상향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190억 루블리 이상을 받게 되는데 이 자금들은 주거 지역들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배정된다."고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언급했다. (2면에 계속)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 동력부 장관 대행, 자진 사퇴

사할린주 동력부의 이고리 부토브스키 장관 대행이 자진 사퇴를 한 가운데 3월 25일부터 동력부 차관이었던 빅토르 가르미데르가 장관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사할린주 동력부를 이끌어왔으며, '사할린 에네르조' 사장직을 포함해 동력 부문에서 20여 년간 일해왔다.

사할린주에서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으로 1주간 2,800명 감염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 감염자 수가 2,883명에 달한 가운데 그중 15명이 독감으로 병원을 찾아왔다. 현재 감염 임계치는 7.3%를 넘어섰고, 성인 감염 증가율은 54.2%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어린 환자들로 총 1,845명이었고, 무엇보다 2세 이하의 유아들이 더 자주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독감의 경우 주민의 전 연령대에서 발생한 가운데 병원체는 B и A (H1N1) 2009 독감 바이러스와 연관돼 있다. 독감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양성이 17.4%), 파라인플루엔자(13.0%), 아데노바이러스(13.0%)가 만연했다.

2023년 4월 및 5월, 와니노 - 홈스크행 화물선 운항 제한

'사할린 해운'회사가 2023년 4월-5월 사할린 섬과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와니노-홈스크 노선 선박으로 차량, 화물, 철도 차량의 운송을 통제한다고 전했다. '사할린-9'선박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수리를 받으러 떠나고, 이 기간에 '사할린-8'과 '사할린-10' 연락선이 운항된다.

'사할린-10'선박은 2023년 1월부터 정기 수리에 들어가 3월 말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쿠릴열도를 따라 해안 방공통제 구역 조성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연방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회의에서 러시아는 쿠릴열도 지역에 실시간 해안 방공 통제구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라무르섬에서 쿠릴 열도들을 따라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 조성을 위해 '바스티온' 대공미사일을 배치했다. 동부군관구에는 올해 말까지 이동 전개시스템을 완성해야 하고, 군사 제반시설 건설에 역점을 두고, 최신 무기를 다루는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국방부장관은 강조했다. 해안에 배치될 '바스티온'은 해안 방어 및 다양한 종의 함선을 격파하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의 비행 범위는 최대 500km이다.

사할린주 정부, 사회적 의무 이행,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경제지원 명목으로 추가 자금 배정

(1면의 계속)

그 예로 우글레고르스크지역에 도로 개선 및 마스수라오 하천을 건너는 교량 개건, 지방자치단체 주택들의 주요 부문 수리와 해안 구역 보수공사, 도로건설 장비 차량 4대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배정된다.

이 자금 덕에 우글레고르스크 중앙병원의 진료소 3층에 주요 부분 보수공사, 사흐초르스크에 400명을 수용할 초등학교 구역의 개보수 작업 및 건설 마무리, 크라스노폴리에 마을 도서관의 출입구 보수 및 주요 외장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한 예산 계획안이 작성된다.

'사할린 지역에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 여건 조성'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지출로 약 10억 루블리가 증가됐다.

"2억5천만 루블리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진입로 개보수 및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에 주택 구역의 웅덩이 보수공사를 위해 책정됐다. 2억9백만 루블리는 '1천 개의 주택' 기획 실행을 위해, 1억5,920만 루블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오하, 쿠릴, 노글리키, 티몹스코에 마을의 주택가 마당, 해변, 공원, 소공원 등 공공 구역 보수공사 및 정비에 위해 배정됐다."고 사할린주 재무부의 올가 로파티나 장관이 말했다.

주 의회 의원들은 주 정부가 제안한 주요 재정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 재정 변경안은 사할린주 정부의 두 개의 우선적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전 확보와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회 의원들과 주지사 정부 산하 기관들의 공동의 효율적 작업 덕분에 사회적 방면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할린 주두마의 엘레나 카시야노와 의장이 강조했다.

"우리는 보건, 사회적 지원책, 교육 분야에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주요 결과는 바로 착수한 기획들이 실패할 위험은 없다는 점이다. 추가 추진하는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사할린 주두마 예산과 세금 분야 상임위원회의 대표인 나탈리아 자하르추크가 말했다.

사할린의 체육 및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명목의 지출도 약 10억 루블리가 증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표준에 따라 스포츠 훈련을 위한 자금을 받게 되며, 또한 다른 명목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추가 자금 덕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올림픽 예비 동계스포츠학교의 출입구와 스키 육상훈련 코스 구역, 스키 점프대 K-30의 보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할린국립대, 제3회 국제 학술회 개최

지난 21일(화) 사할린 국립대에서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엘비라)의 주최로 '러시아 및 동양 국가들에서 교육적 및 문화적 전통: 문명 사회의 경험을 공유'란 주제로 제3회 국제 학술회가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을 한 이고리 톨스토쿨라코브 극동연방대학교(블라디보스토크) 한국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현황 및 전망(예측)'이란 주제로 발표해 큰 관심을 이끌었다.

이번 학술회에는 사할린국립대,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 모스크바대학교를 비롯해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전문가 및 대학 교수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매년 봄에 사할린 국립대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 참가자들의 지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대학 외에 학술회에 홍콩 교육대학교, 호치민 외국어 정보기술 대학교, 에티오피아 공과대학교 교사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에 사할린 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이 '한국 학교의 폭력 대응 정책'이란 주제로 발표해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사할린 국립대의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임엘비라 학장이 말하였다.

회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부분에는 주로 사할



린 국립대 교수들이 러시아어로 발표했고 둘째 부분에서는 외국어 전문가 및 교수들이 영어 또는 한국어로 연설하였다. 이 부분의 참가 교수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아프리카, 유럽, 동양의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폭넓은 세계를 대표하는 만큼 Chat GPT 기술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다문화주의의 맥락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도덕적, 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발표 주제도 다양했다.

과학적인 면에 관심을 가진 사할린국립대 학생들도 이 학술회 내용을 온, 오프라인으로 청취할 수 있었다.

"저는 외국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재미있는 발표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회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교육, 언어학적 관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과 이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라고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전공을 한 3학년생인 나른스카야 안나가 소감을 나누었다.

올 3월 31일과 28일에는 사할린국립대 동양학부 학사 및 석사 과정 학생들을 위주로 각각 두 가지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국립대 학생 워로비요바 다리야)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여학생이 구하다

2022년 여름에 물에 빠진 남성을 사할린의 여학생 타치야나 수르구체와가 구조했다.

이번 3월 20일에 러시아 연방 비상대책부 사할린 지부는 어린 여학생의 영웅적인 행동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공로로 메달을 수여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도우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주변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말할 나위 없이 관심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라고 러시아 연방 비상대책부 사할린주 총지부 인사과장 엘레나 글라제와가 말했다.

어린 여학생은 해변을 산책하다가 물에 빠져가는 남성을 목격하고, 당황하지 않고 남성을 구하러 물로 뛰어들어 혼자 그 남성을 물에서 끌어냈다.

여학생이 소리치자 이후 주변 사람들이 여학생을 도우러 달려와서 구급차를 호출하여 남성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Школьница вытащила из воды тонущего мужчину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ая школьница Татьяна Сургучева летом 2022 года спасла утопающего мужчину. За этот героический поступок юной островитянке 20 марта вручили медаль МЧС РФ «За спасение погибающих на вод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Ф.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нашей жизни есть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всегда готовы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Такой поступок безусловно заслуживает внимания и уважения»,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кадров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Глазева.

Юная сахалинка увидела тонущего человека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ки по берегу моря. Она не растерялась и бросилась на помощь мужчине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тащила его из воды.

Школьница закричала, после к ней прибежали очевидцы. Они вызвали скор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сахалинцу.

'나우루즈' 축제, 3월 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열려

다가오는 이란과 튀르키예의 새해를 맞이하는 '나우루즈'(새날) 봄의 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축제 행사가 시공원에서 펼쳐졌다.

튀르키예 민족은 3월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의 날을 '나우루즈'로 기념한다.

전통적으로 이 행사는 사할린주 민족총회가 주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방문객들을 위해 민속 예술단들의 공연과 '사할린은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성인과 아동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 게임이 펼쳐졌다.

튀르키예 전통 스포츠 씨름은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고, 셰프들이 준비한 4가지의 볶음밥은 누구나 맛볼 수 있었다.

Навруз отметили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8 марта

Весенний праздник Навруз(новый день)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уля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редстоящему иранскому и турецкому новому году, прош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21 марта, в день весеннего равноденствия турецкие народы празднуют Навруз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традиции выступила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ля гостей устроили концерт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ыставку «Сахалин наш общий дом», организов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игры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Кульминацией стала восточная борьба на поясах куреш. А всех желающих угостили пловом — повара приготовили четыре его вида.

특수전투작전 참전병 지원 자선 바자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3월 2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특수군사작전 참전병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가 열린다고 시행정부가 전했다. 행사는 시티몰 쇼핑센터 3층,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바자회에서 참전병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 전할 수 있으며, '카츄샤'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바자회 방문객들을 위한 활동교실로 '점토 식물부조', '과자 장식하기', '부직포로 브로치 만들기', '사진 액자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이 펼쳐진다.

또한 바자회 행사의 일환으로 마리나 키셀료와, 엘레오노라 탈라라예와, 카리나 이와노와, 밀리사 체르넨코, 왈렌티나 그레벤키나, 마리아 스트렐코와의 노래를 듣고, '메스타(꿈)' 보컬 앙상블과 '엘레오노르' 무용단의 공연을 볼 수 있다.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ярмарка в поддержку бойц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25 марта пройде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ярмарка в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с 11:00 до 13:00 в ТРК «Сити Молл»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На ярмарк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снять на видео интервью с пожеланиями для бойц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Также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нить песню «Катюш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ярмарки подготовили следующ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Ботанический барельеф», «Роспись пряников», «Изготовление броши из фоамирана», «Изготовление фоторамки», «Каллиграфия».

Кроме того, на площадке ярмарки пройдет концер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будет услышать номера в исполнении Марины Киселевой, Элеоноры Талалаевой, Карины Ивановой, Милиссы Черненко, Валентины Гребенкиной, Марии Стрелковой, а также вокально-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Мечта» 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Эленор».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다> 사할린 경연에 오하의 의사, 우승

3월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다> 지역 단계 경연의 폐막식이 열렸다. 벌써 3번째 보충교육 분야 교사들의 경연이 사할린에서 진행되었다. 지역 단계 결승전에서 11명이 경쟁을 치르는 가운데 7명이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 그 결과 영역들에 따라 3명의 우승자가 선출됐는데 <기술 영역 보충교육 교사> 부문에 알렉산드르 샤로이킨(포로나이스크), <미술 영역 보충교육> 부문에 나탈리아 크류츠코와(네벨스크), <전문적인 첫 출발> 부문에 루슬란 로마넨코(유즈노사할린스크)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다> 지역 단계 경연에서 압도적 우승자엔 오하의 주민인 세르게이 사발린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8면에 계속)

하늘길 막힌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뱃길로 입국

2022년에 영주귀국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러시아 사할린동포 1세대와 동반가족 중 63명이 한국에 영주귀국차 지난 17일 배편으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으며 남은 27명은 31일에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할린 동포들이 여객선을 이용해 단체로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90명은 지난해 영주귀국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350명 중 일부로 2022년 당초에 입국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으로 입국이 올해까지 연기됐다. 이번에 고향의 영주귀국 대상자들의 고국에 대한 열망을 고려해 막힌 하늘길 대신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배편을 통해 입국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최고령자인 이청자 (88세) 씨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며, 평생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오다 이번에 아들과 함께 입국했다."며 감격에 말을 잊지 못했다.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영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재훈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장 등도 영주귀국자들을 마중나와 "비행기가 아닌 배로 불편하게 귀국하게 해 송구하나 힘드시게 오신 만큼 고국



의 따뜻함을 더 크게 느꼈으면 좋겠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영주귀국자들은 출국심사를 완료하고 간단한 귀국 환영회 행사를 치른 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위치한 사할린동포 국내 1세 거주지역으로 이동해 안락한 고국 땅에서 여장을 풀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인력을 포함해 직원 6명이 현지 인솔로 파견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까지 안전하게 영주귀국자 입국을 지원했으며, 적십자 동해지구협의회(회장:박병렬)봉사원과 대학 RCY 회원들도 고향의 사할린동포들의 입국을 도왔다.

(한국 언론기관들의 기사 인용)

<자신을 알아가며> 장태호 시인과의 만남



지난 17일(금)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태호(장 니콜라이 드미트리예비치) 시인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행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 일환으로 새고려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행사를 연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은 사할린 문학계에 떠오르고 있는 장태호 시인을 소개했다.

장태호는 사업가이자 사할린에 대한 수많은 노래들의 작사이며, 두 권의 시집 <두 번째 호흡>과 <집으로 가는 길>의 저자이다. 그리고 일부 작품은 2018년에 출판된 사할린 한인 문학인들의 선집 '운명의 문양'에 게재되었다. 장 선생은 비범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찾고 새로운 모든 것에 개방적인 사람이다. 장태호 선생은 다양한 재능들을 삶에 접목시켰다.

학창 시절에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 활동(재즈 오케스트라에서 드럼 치기)에 빠져 있었다. 기술학 박사인 그는 노위시비르스크와 사할린의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고, 1990년대 초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적도 있으며, 그 당시 한인사회계에서 청년회 활동도 담당한 적이 있다. 그 이후 개인업을 시작하고 1990년대 말기에는 노래 가사 쓰기에, 특히 사할린에 대한 노래에 푹 빠졌다. 시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번 모임의 주제는 <자신을 알아가며>라고 정했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고도 결국 삶의 마지막에는 자신에 대해서 사실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둘째,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50%, 다른 사람에 대해 50% 알고 있다. 셋째 그룹의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이들은 삶의 마감에 자신을 거의 100%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당신들이 세 번째 유형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장 시인이 만남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 장태호 시인은 '멀고도 가까운 한국'이란 노래 가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날 부모들을 많이 회상하는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시를 읽으며 시인마저 눈물을 흘렸다.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말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특히 감성이 예민한 참석자들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이날 사할린에 대한 여러 노래 영상도 볼 수 있었고 시인이 최근에 쓴 시도 청취할 수 있었다. 장 시인은 어린 시절 이야기, 창작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들려주기도 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의 핵심은 장태호 시인의 '모래알'이라는 4행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4행시 - 모래 알갱이...
생각과 성찰의 입자들이다,
알갱이 또는 절반 것
한 때 포착된 순간들이다.

이날 장태호 씨의 작품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도 했고, 어떤 시는 밝은 미소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신문사가 개최한 행사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취재: 글/다리아 워로비야바, 사진/이예식 기자)

사할린한국교육원 3년의 성찰: 눈물샘 사할린에 웃음과 신명을~

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이병일

1. 팬데믹 함께 눈물의 섬 사할린에 들다

팬데믹이 고개를 들던 3년 전 나는 용케 국내 팬데믹을 피하듯 한국을 떠나 눈보라를 헤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내렸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뜰의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비와 이중징용희생자 추모비에 묵념하고 교육원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단 열흘만에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어·문화강좌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기존의 활발한 국내 교류사업들은 모두 취소되었다. 일제 냉전 역사에 연유한 슬픔의 섬은 4, 5월까지 산을 하얗게 덮었던 얼음 눈이 녹으면서 차가운 물이 도시 전체를 돌아 흘러 차가운 눈물의 섬이 되었다. 사할린엔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했다.

2. 재미와 의미를 충족할 교육원(장) 역할 찾기

• 문화의 메신저

극동 3개 교육원장은 공무비자 90일이 만료될 즈음 공무상 국내출장을 통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복귀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과 제재 시기에 국경을 넘는 일은 PCR 음성증명, 2주간 격리, 멀고 먼 항로의 힘겨움과 모험이 늘 함께 했다. 그럼에도 여행가방엔 한국어 및 문화체험·교육에 필요한 물품, 동포예술단체나 한국어채택교 선생님이나 부탁한 물품(한복, 문화지도, 한지, 단어카드, 민속놀이도구, 공연도구 등)으로 채워졌다. 이런 것들은 교류가 원만할 때엔 당사자나 방문단체가 사할린에 오면서 가져오거나 외교교우치를 통해 운송하던 것들이었다. 아내가 준 반찬은 포기하거나 최소화해야 했다. 그런 교육·문화적 물품을 나르는 메신저 내지 배달원의 역할은, 힘들지만 독보적인 보람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한 공무원이 거의 고립된 사할린 동포들을 망각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드린 것 아니었을까 나를 생각해 본다.

• 재미와 의미의 결합 모색

사할린 동포와 러시아 현지인들이 잘 어울려 사는 것,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과 인식을 유지·증진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깊다. 교육원의 역할은 그 문화적 스며들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다소 썰렁한 문화센터 로비에 이동식 TV를 배치하고 우리말방송과 KPOP, 세계문화유산, 전통과 현대의 한국문화, 경제적 성취에 대한 영상을 매일 상영했다. 영상을 안보는 것 같아도 센터에 출입하는 어른, 어린 학생들이 자주 시청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학교의 교문맞이처럼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파티안경을 쓰고 어른, 청소년 수강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사할린에서 원장의 이런 모습은 낯설다. 낯설면 어색하지만 웃음이 나오고 재미있어서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 민속춤 교실

또한 평생교육 강좌 '세계의 민속춤' 클래스를 열어 2세 동포 어르신과 현지인이 함께 센터 강당과 도시 공원, 스키장 리조트 위에서 춤추고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 1세 어르신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사할린 할머니들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 본다. 사할린 할머니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춤추며 밝게 웃는 모습을 도통 보기 어려웠다"고 하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 평생교육 강좌 '글쓰는 사할린'도 인상적이다. 사할린 동포 2세 '빅토리아 최' 작가님을 강사로 모시고 동포 2세분들의 부모와 성장 시절에 대한 기억을 글로 써 역사와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탄생한 강좌였다. 한국어가 서툴다면 러시아어로 써도 좋으니 제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부모들의 아픔과 그 아픔을 보며 자란 기억을 되살려 생명을 주자는 취지였고 우리말방송과 새고려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동포 단체들의 행사나 잔치 등에 초대되면 꼭 탈과 한삼, 소고,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를 지참했다. 언제라도 민속춤클래스에서 가르친 밀양아리랑을 같이 추었고, 소고춤과 탈춤, 혹은 사할린 동포 애창곡을 불러 민족정체성의 실마리를 드리곤 했다. 현지인들에게는 카레이츠(корейцы, Koreans)의 신명나는 문화를 보여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다소 자주 초청을 받는 편이었다. 나는 내 업무라고 생각했으며 다행히 내 적성에 잘 맞는 일이었다.

• 한국(모국)과의 교류 단절을 보완하는 업무 찾기

교육원의 본연 업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다. 팬데믹 전까지 방학 때 활발히 오고 가던 사업이 중단되자 한국어 학습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외국어학습은 익숙한 접촉과 소통이 핵심인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육원장 과제 수행 대회"였다. 한국의 시낭송, 자신의 꿈 말하기, 한식만들기나 KPOP 춤·노래 영상, 한국영화 감상 말하기 영상 등을 제출하면 한국음식 체험권이나 한국 기념품 등을 상품으로 주었다. 주말에는 한지공예와 매듭공예, 김밥만들기 등의 특별수업을 가끔 운영했다. 교육원 공간을 심분 활용해야 하고 말하기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언어학습에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2022년 여름방학에는 처음으로 사할린 초·중등 학생을 위한 한국어·문화캠프를 열었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 한국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한국교육진흥협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Востока обсудили в СахГУ



21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стоялась I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Востока: объединяя опыт цивилизаций". В кач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а выступил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торый уже третий раз устраивает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сштаба.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офессор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ВФУ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г. Москва), МГУ имени М.В. Ломоносов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Урал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г. Красноярск), 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и профессор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тая, Италии, Эфиопии и Вьетнам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 пленарный доклад д.и.н., профессора ДВФУ И.А. Толстоулаков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рогноз».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поделена на две секции, в первой выступи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с докладам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о второй секции иностранные участники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ам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 География участников ежегодно расширя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слушать и обсудить доклады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 Университе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нконга, Хошим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Эфиопск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дель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хотела бы выразить директору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любезно согласился при-

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Темы докладов также удивили свои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от обзор технологий Chat GPT до нравственно-эсте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условия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Каждый из слушателей мог выбрать из эт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то, что интересно именно ему.

Конференцию также посетил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ктивно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наукой.

- Я была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а выступлениями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иностранных вузов, получила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послушать про образование в Италии, про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 точки зрения лингвистики, про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миграционный вопрос. Я открыла для себя новые корейские телепередачи и учебник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еобычным мне показался доклад новоприбывшего директора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Чон Сын Хуна, который рассказал про насилие в школах. Занимательно, что доклад был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что дало мне не только узн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для себя, но и потренировать аудировани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делит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мероприятии студентка 3 курса факуль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арынская Анна. Это пер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весенних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проводимых каждый год СахГУ. Запланированы еще два мероприяти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агистрантов и бакалавров,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28 и 31 мар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иктория БЯ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Иностранные дипломаты знакомят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проводит программу знакомства сотрудников зарубеж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с культурой страны.

В период с 8 марта по 31 мая дипломаты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хи в Сеуле.

В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входят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нцев К-POP,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тхэквондо, а также посещения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Кроме того, дипломаты прослушают лекции 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ится с 2005 года.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563 дипломата из 115 стран.

KBS World

Тэхо Чан: «Познавая себя»

17 марта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Ее героем стал сахалинский поэт-песенник Тэхо Чан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Его представила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2-го поколения Тэхо Чан – незаурядная личность.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в свое время преподавал в вузах Новосибирска и Сахалина, занимал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начале 90-х годов был депутат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совета. После чего ушел 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чем занимается и по сей день. Но творческое начало, заложенное еще в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ах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не дает ему покоя. Музыка, рисование, литература – это небольшой круг его увлечений.

В конце 90-х годов Тэхо Чан увлекся написанием текстов для песен. Он поэт-песенник, много пишущий о Сахалине,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двух поэтических сборников: «Второе дыхание» и «По дороге домой».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Тэхо Чан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по песне «Далекая, но близкая Корея». Именно с этой песни началос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творчества Николая Дмитриевича. Песня, посвященная родителям,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священа судьбам мно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Мои родители в свое время уехали на ПМЖ в Корею. В 2015 году я забирал маму обратно на Сахалин. Нужно было оформить документы в посольстве России, которое находится в Сеуле. От Ансана до посольства на метро 1 час 20 мин езды. Именно столько времени мне понадобилось на написание этих шестнадцати строк. Я ехал, и у меня на глазах были слезы..., - поделился поэт.

А затем зачитал трогательн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о маме, которое заставило прослезиться самого автора, а особо сентиментальных гостей даже разрыдаться.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остаться равнодушным к таким теплым словам любв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еще не раз вспомнит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к которым относится с большим уважением и любовью.

Автор обозначил тему встречи «Познавая себя».

По его мнению, есть три типа людей. Одни тратят целую жизнь на то, чтобы узнать всё о других людях. В конце жизни они ничего о себе не знают. Другие - 50% о себе и 50% о других людях. Третьи же посвящают жизнь самопознанию. И в завершении жизненного пути они могут сказать, что знают себя почти на 100% процентов.

- Я желаю вам быть третьим типом, - говорит поэт.

Сам же Чан Тэхо всю жизнь посвятил и продолжает посвящать жизнь самопознанию и творчеству. Желание дойти до сути, до смысла истинной красоты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в четверостишиях, которые автор называет – «песчин-



ки».

Четверостишия – песчинки...
Частицы дум и размышлений,
Крупинки или половинки
Однажды схваченных мновений

А еще на встрече звучали красивые песни о Сахалине, где видна любовь автора к нашему прекрасному острову.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говорил о детстве, о творчестве, читал свои послед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в недавней поездк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акие-то стихи заставляли гостей опускать голову и прятать слезы, текущие по щекам. Другие же вызвали яркую улыбку и смех. Каждое слово поэта вызвало реакцию слушателей, которые, безусловно, услышали в этой, как выражается автор, «тишине», голос души Дмитрия Николаевича.

Именно душевность, искренность и открытость отличает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оводимые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 традиции гости задали немало вопросов герою встречи. Авторы самых интересных вопросов ждали призы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ее гостем станет сахалинский бард – Сергей Хан.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Фото: Ли Е Сик

Погиб в бою под Кременной

25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в ход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ы потеряли нашего товарища Кима Александра Бокконовича, начальника жилищного отдел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севоложского района.

Нашему другу и коллеге было всего 47 лет. Александр Бокконович погиб в бою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города Кременная Лу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крывая своих сослуживцев. Он с честью и мужеством выполнил свой долг перед Родиной.

С первых дней начала СВО он говорил, что не может находиться в стороне от происходящих в стране событий. И уже в октябре,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мобилизации, сменил деловой костюм на военную форму.

Александр Ким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тем, в 90-х годах, поступил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



бы был призван во внутренние войска МВД РФ и проходил службу в Группе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Гром», где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ава ношения крапового берета.

После армии Александр Бокконович занимал различные должности в 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получил втор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академ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И с марта 2021 года трудился на благо Всеволож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должност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служащего.

У Александра Бокконовича остались жена, 19-летняя дочь и родители. Смерть р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 это большое горе и тяжелое испытание. Примите наш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вет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навсегда остану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Вечная память!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севоложского района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провёл учения по нанесению ядерного контрудара

Запуск 19 марта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был частью двухдневных тактических учений,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имитация тактической ядерной контратаки».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учениями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с тактическим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включая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руковод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Его сопровождала дочь Ким Чжу Э. Как заяв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дним лишь фактом налич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евозможно сдерживать войну. Нужно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нанесению реаль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по врагу. Ким Чен Ы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быть готова к нанесению ядерного удара, поскольку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лихорадочно» проводят «репетицию вторжения» на Север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19 марта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учения, включающие проверку устройств контроля ядерного взрыва и детонаторов. Ракета, запущенная из уезда Чхольс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пролетела 800 км, взорвавшись в воздухе в заранее определённой точке на высоте 800 км над Восточным морем,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Как сообщили ране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19 марта в 11:05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Прежде чем упасть в море, ракета пролетела около 800 км,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альности полёта ракеты KN-23,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ой версии российской БРМД «Искандер».

Hanwha Group откроет филиал музея Помпиду в Сеуле

19 ма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Hanwha Group подписала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центром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Жоржа Помпиду,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открытие его филиала в Сеуле. Hanwha Group получит лицензионные права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мущества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го французского музея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течение четырёх лет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филиа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азванного Pompidou Center Hanwha Seoul. Он разместится в 63 Square, небоскрёбе, принадлежащем Hanwha,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Ёйдо.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2025 года. Hanwha Group будет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ь две специальные выставки, на которых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шедевры из коллекций Центра Помпиду.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World Airport Awards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занял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лучших аэропортов мира и третье место среди аэропортов Азии. Кроме того, он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World Airport Awards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по версии британской 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Skytrax. Это награды за лучший персонал аэропорта в мире, за лучший персонал аэропорта в Азии и лучшую систему пограничного контроля. World Airport Awards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престижной наградой в ми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аэропортов. Она учитывает уровень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удобства более чем в 550 аэропортах мира. Награды присужд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ов пассажиров, проводимых в течение восьми месяцев. Лучшим аэропортом мира признан сингапурский Чанг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аэропорт Хамад в Дохе, на третьем – Ханэда в Токио.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состоялось 16 мар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Passenger Terminal Expo 2023 в Амстердаме.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ен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й молодёжи

Числен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 РК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по 29 лет увеличилась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на 9,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497 тыс.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0 мар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е население – это жители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5 лет, которые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ё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не относятся к занятым и не ищут работу. Его численность в феврале 2020 года превысила 4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феврале 2021 года - 440 тысяч, в феврале 2022 года - 4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е работающие и не планирующие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объясняют это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трудностями в поиске подходящей работы, желанием отдохнуть после ухода с предыдущего места работы. При этом к отдыху не относи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службе в армии и поступлению в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Хотя в последних данных не указаны подробные причины резкого роста числен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южнокорейцы отказались от поиска работы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подходящи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феврале число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молод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о 3 млн 853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125 тыс. человек мен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Это самое большое сокращен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феврале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молодёжи составил 45,5%, что на 0,4% мен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Это первый спад за два года.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составило 2 млн 635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165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оказатель на февраль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ведения статистики.

(RKI)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ь пытается спас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Японией

Достижен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Японией, которые он согласовал в ходе недавнего саммита с премьером Фумио Кисидой, встретили не самый лестный прием на родине.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соглашений, посчитав уступки чрезмерными, оппозиция же вообще называет Юна предателем, обвиняя его в про-япон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и грозя импичментом. Вместе с тем, новая ли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стретила бурю аплодисментов в Вашингтоне, но ему самому приходится теперь тратить огромные усилия, убежда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то "сделал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выбор ради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Во вторник, 21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Юн Сок Ёль установил собственный рекорд, проведя перед камерой в прямом эфире 23 минуты, стараясь убедить корейцев, что ег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Японией, которые он согласовал в ходе саммита в Токио 16-17 марта, были "правильны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выбором", "решением ради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а также "новой дорогой, открывающей путь к взаимовыг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Японией".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призвал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ивычных" претензий к японцам.

На такой неординарный шаг политика, который вообще-то не очень любит публично выступать и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цирует скандалы своими резкими и не всегда продуманными высказываниями, заставило резко отторжение в обществе в отношении того,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а как "эпохальный успех". Стоит уточнить, что есть и те, к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итоги, 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в Корею против, чем и обеспокоен президент Юн.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итогам визита в Японию две стра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орядке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корейцам, которые были мобилизованы для работы

на япо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 годы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1910-1945 гг. Также Сеул и Токио прекратили спор в отношении введенных Японией против Кореи торг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нормализ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Помимо этого было решено возоб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пакта по обмену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GSOMIA, а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ороны как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так и трехстороннем (с участием США) формате.

Казалось бы, что можно только порадоваться за две страны, у которых очень тесные, но при этом крайне непростые и полные подводных камней отношения. Однако, если оценивать трезво и вдаваться в детали,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шло на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тупки, а Япония осталась "при своих", сумев фактически настоять на своем и не сдав ни одной своей позиции в принципиальном споре.

Так, компенсации рабочим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не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а корейские,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субсидии по итогам договора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в 1965 г.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отказался извиняться перед корейцами за прошл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 лишь туманно сказал, ч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едыдущие зая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ключая те, что были в 1995 г.", когда японские политик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самми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Японии в бесед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рямо заявила, что "вопрос с компенсациями закрыт", а они "не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извиняться перед Кореей". Новую бурю негодования в Корею вызвало высказывание главы МИД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который сказал, что вообще не было никакого принуждения к работе.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конкурс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ежегодный конкурс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их вузов, который проведет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ПбГУ,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фонда Кореи,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делового совет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курс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13-й по счету раз и будет посвящено 1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известн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Сергея Рахманинова.

Конкурс пройдет в два этапа. Сначала претенденты должны будут записать и представить жюри видеоролики с выступлением по заданной теме. В ма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отбор, а 19 мая пройдет собственно финал.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я жюри выберет восемь побе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различными приз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ключая билеты на полет в Москву и обратно, приглашения на языковую стажировку, денежные премии,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и грамоты от имени посла РФ в Сеуле и рект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обеспокоены нехваткой запчастей к закупленным у РФ вертолетам

Наступившая в Южной Корее теплая и засушливая погода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начало периода массовых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Для борьбы с огне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лесных угод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ЛУ РК)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т некогда закупленные в РФ вертолеты "Ка-32Т", которые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в тушении пожаров. Однако теперь корейские лесники беспокоятся, что им будет гораздо сложнее победить стихию, так как вертолетам не хватает запчастей,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но введением против РФ санкций.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есных угодий РК,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имеющихся у ведомства вертолетов являются российскими Ка-32Т. Всего у АЛУ РК есть 48 вертолетов, а 28 из них - "Камовы".

Российские машины пользуются уважением у корейских пилотов и техников за неприхотливость и высокую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в тяжелых условиях. Особенно это востребовано при тушении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 Корею, сезон которых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есну и осень.

Однако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возникла проблема: начались пожары, а с запчастям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лошадок" возникла "напряженка", тем более, что многим машинам уже третий десяток лет. Южная Корея в свое врем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санкциям проти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в ответ внесла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число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итоге корейцы не могут закупать запчасти для вертолето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ч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проблемам в борьбе с пожарами. По информации газеты "Чосон Ильбо", ино-

гда приходится собирать рабочие запчасти с нескольких машин,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у одной.

"Ситуация с "Камовыми" непростая, но пока мы держимся. Однако если все так продолжится, то в худшем случае нам придется сажать вертолеты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запчастей", - цитирует местный телеканал KBS слова начальника группы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Управления обслуживания авиатехники АЛУ РК Чхве Хёк Сон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есных угодий же, развивая эту тему, говорят, что вс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в итоге и к невозможности тушения пожаров с воздуха. В этой связ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се "Камовы" используются только для вылетов на пожары, прекратив их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других целях, так как борьба с огнем носит приоритетный характер.

Отмети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Южной Кореи стоит традиционно теплая и засушливая погода. В этой связи резко вырос риск возгораний. 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рные парки закрыты для посещения туристов, но это не спасает - то здесь, то там вспыхивает огон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жары на востоке Южной Кореи достигли такой мощи, что вплотную подошли к крупной АЭС и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угрожали безопасности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Дым от пожаров был замечен на снимках из космоса. Тогда только путем больших усилий и массового задействования пожарных вертолетов удалось ликвидировать огонь, но выгорело более 1000 гектаров леса, а сотни людей пришлось эвакуирова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25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благоустроя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В 18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ат скверы,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и парк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Эт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ддерж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Благодар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этот год удалось расширить с 20 до 25 объектов.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реализуют в тех районах, где жители проявили наибольшую активность на голосовании. К примеру, в Макарове появятся сквер «Без пяти семь» и «Ленинградский сквер». Также зоны отдыха благоустроят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и Иль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Долинске –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Пионерской и Октябрьской, Корсакове – в районе дома №9 по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На Итурупе обновят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Курильская вершина», а на Кунашире – парк Победы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олный список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в разде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Конечно, хочется, чтобы красиво стало везде и сразу. Но нельзя не заметить, как с каждым годом наш город меняется к лучшему,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Маргарита Синицына. –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я гуляла с коляской по тропинкам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 даже не могла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что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такие классные игр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Здорово, что эта работа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Берутся во внимание и другие территории, не такие крупные, но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е для нас, простых жителей.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выполняют озеленение, обустраивают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зоны отдыха со скамейками,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25 объек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коло 454 млн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100 млн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Мы настаиваем, чтобы среди проектов обязательно были сель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Таки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новятся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настоящи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жителей. Важно учитывать мнение каждой группы людей и 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для всех был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зона для отдыха и общени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поселки,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арки,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Начиная с 2017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15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этом году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ройдет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и состоится с 15 апреля по 31 мая.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большинства островитян, реализую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ся группы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и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удет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ться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страдающими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Работа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едь помогать людям решать возникшие в процессе лечения сложности будут те, кто, зачастую уже сам прошел этот путь в ходе борьбы с аналогичным заболеванием.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р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была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месте с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убернатор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ется с больными.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служебны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о другим – приняты системные решения, призванные не допусти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одобных проблем в будущем у других пациентов. А теперь губернатор будет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ться и с гражданами, страдающими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Часть жалоб, озвученных в ходе приема, касалась маршрут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Врач, который направляет больного к специалисту другого профиля, не всегда записывает его на прием. А пациент зачастую не может с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уда и к кому обращаться. Он теряет время, а это грозит негативн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ля здоровья.

– Помоч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сможет группа поддержки больных. Сейчас мы обучаем тех, кто готов работать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больными. Набираем желающих поддерживать граждан с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тараемся привлечь тех, кто лично столкнулся с такими болезнями. Эти люди, которых можно назвать проводниками здоровья,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пациентам записываться к нужным врачам, а также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других ситуац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лечением. Благодаря обучению, а иногда и личному опыту, они будут очень хорошо разбираться в таких вопросах. В резуль-

тате мы снимем часть нагрузки с медиков. А у пациента появится человек, к которому можно буде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лядной иллюстрацией проблем с маршрутизацией стало обращение жи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шедшего на прием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н лечится на дневном стационаре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Анализы показали: необходима консультация эндокринолога.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пригласить нуж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диспансер или выдать пациенту талон к нему, больного отправили записыв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общие основаниях. Когда же человек попал на прие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обследований исчезли и анализы надо сдавать еще раз.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обраться и наказать виновных.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шла на прием с финансовым вопросом. Ее сын болен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и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учится в одном из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области. Для одинокой мамы расходы на лечение и обучение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непомерно высоки. Разобравшись в ситу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ответственным лицам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о переводе студента на целевое обучение. Семья избавится от платы за учебу, а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лледжа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будет име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е рабочее место.

Рассказать о проблемах,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граждане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и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7-914-759-30-80, +7-924-288-66-99.

Российский бизнес на 20 лет освобождаетс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инвестируя в развитие Курил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епреры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за год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резидентами стали доступны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земли и применение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В 2022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тупил в силу особый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и налоговыми льготами –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РФ (КОРФ). Компании, реализующи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а 20 лет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получаю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За год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13 резидентов.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Курил создан уникальный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 самый продвинуты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ам нужно больше привлекать инвесторов, сделать всё,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осваивать эту малонасел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ужно добиваться того, чтобы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являлось и реализовывалос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Директор КРД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ихаил Алешин считает, чт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РФ оптимальный как для старта бизнеса, так и для его развития.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для компаний с момента регистрации в КОРФ даются на 20 лет. Инвесторы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и имуще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и, земельного 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налогов, пользуются пониженными страховыми взносами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преференциями. Введен уведом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резидента, процесс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ст и занимает минимум времени», – поясн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РДВ.

По его словам,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экологию и природную красоту островов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принят ряд ограничений. Преимущество у те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инвестируют в сферу туризма и марикультуры. Из 13 инвестор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КОРФ, есть и те, кто планирует производить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вести торговлю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Общий объем заявл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евышает 958 млн рублей, запуск проектов позволит трудоустроить около 130 жителей Курил.

Компания «Сёрф Тур» –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появившегося на Курилах в 2022 году. Резидент реализует туристский проект для ловцов океанских волн и предлагает желающим уроки сёрфинга на побережье острова Кунашир. Экстремалы могут отправиться в сап-экспедицию по Охотскому морю. Для них приобретено сёрф- и сап-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сдачи в арен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иков.

«О режим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знали из СМИ. Мы сами сёрферы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эту культуру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оэтому решили создать сёрф-кэмп и выраст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до полноценной школы. Оформили ООО и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налоговую. Отправлял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очень быстро получили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егистр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ичего подтверждать не нужно было. Еще около месяца шло оборудование. Гидрокостюмы, весла, сапы отправляли кораблем из Новороссийска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а потом – на Курилы. Первые сёрферы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мы приняли уже в июле. За два месяца у нас побывало 3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и тренеры со своими учениками.

Пробный сезон, считаю, был удачным, сейчас готовимся к новому сезону. Уже есть групповые заявки, рассчитываем принимать по две группы в месяц. На Курилах условия для обучения сёрфингу идеальные с июня по конец октября. И любите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оценят местные волны. Они стабильны, можно заниматься всегда,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люс. И не так сложно добраться, как многие думают», – поделился директор «Сёрф Тур» Александр Сокирник.

КОРФ 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мера гос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на островах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Увеличива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активность и потенциал островов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Курилы».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как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фазе, так и на операционно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 соглашениям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ют 8 резидентов. Компании строят сезонный туристский кластер «Архипелаг Онекотан», гостиницу «Эбеко» на острове Парамушир и другие объекты.

«Сегодня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озданы и успешно работаю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ТОР «Курилы» – один из лучших в части земл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пехи в КОРФ. Но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ведем постоянно. Например,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услов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емли без торгов, которыми пользуются резиденты ТОР, и на режим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РФ. Участник КОРФ может без торгов получить в аренду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для вед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льготной ставке арендной платы. Совместно с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проводим работу по определению территорий, свободных от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их вовлечения в хозяйственный оборот в рамка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режима КОРФ. Кроме того, недав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утвердило особый режим тамож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ля компаний-участников КОРФ, аналогичный уже действует в ОЭЗ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уществен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и льготы по земле. Участник Курильской ОЭЗ также будет иметь право на льготы по таможенному оформлению товаров и применение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ТЗ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Закон буд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2046 года. Учитывая уникальность рекре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этих территорий, мы надеемся на кратный рост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сделают островные территории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для туристов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И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каждого, кто хоч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резюмир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РДВ Николай Запругаев.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обеспечат жителя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ред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личный прием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областному минздраву провести служеб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чтобы разобраться в ситуации с жител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нвалиду первой группы, полностью лишенной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двиг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требуется обследование у невролога и дру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днако женщина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рачей. По телефону в поликлинике ей посоветова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явиться на прием.

– Не все проблемы наше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ключаются в нехватке денег или оборудования. Гораздо хуже, когда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формализмом, отсутствием душевной чуткости со стороны людей, ч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олг – быть милосердным. Тех, кто о нем забывает, надо наказыва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 помощью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ась 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У нее трое детей. Двое из них за один год стали инвалидами. Муж ушел. Женщине пришлось оставить работу, чтобы заниматься детьми и проходить с ними реабилитацию.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следования в федераль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старшей дочери назначен лекарственный препарат, однако при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и были выявлены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Поэтому женщина вынуждена покупать для дочери за свой счет другое лекарство. Разобравшись в ситу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от медицин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 оказать семье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приставить к семье со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ника, который снимет с матери часть забот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обеспечить их местами в группе присмотра пр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реодоление». Также женщине помогут найти подходящую работу.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ется с гражданами, нуждающимися в особом внимании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Среди них – люди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и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нвалиды. Работа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помочь отдельным людям, но и выявлять системные проблемы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и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для их устра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평년보다 일찍 사할린과 쿠릴에서 대대적인 도로 보수공사에 착수

가상 조건이 양호한 가운데 평년보다 2주 일찍이 주요 차량도로 공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2천m² 이상 늘어난 11만m²의 도로를 순차적으로 공사할 계획이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회의에서 밝혔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나와, 네웰스크, 홈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지역들은 4월1일

까지 보행자 길과 도로망 상태 점검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4월15일까지는 토마리, 우글레고르스크,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시지구에 도로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할린의 북부와 쿠릴 지역은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사할린주 교통 및 도로 산업부의 알레리 스피체코가 말했다.

도로 보수공사 및 정비량이 가장 많은 곳

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이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도로 표면 60 m²의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이에 거리 보수공사는 이미 시작했다. 도로건설업자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고온 액체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서 로드 풀러나 휴대용 장비로 압축이 필요 없는 '성형 아스팔트 기술'을 통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단체 70%, 재외동포청 서울에 유치하기를 희망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 결과, 서울을 1순위로 선택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인회, 한상,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3.20(월)부터 3.22(수)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재외동포 단체장들은 서울 70%, 인천 14%, 경기 10%, 기타 6% 순으로 해당 지역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조사용답
한인회총연합회	124명	52명	7명	4명	187명
한상단체	770명	125명	62명	47명	1,004명
한글학교협의회	842명	179명	167명	88명	1,276명
응답(개)	1,736명	356명	236명	139명	2,467명
응답(%)	70%	14%	10%	6%	

√ 기간: 2023.3.20(월)~3.22(수)

√ 방법: 카카오톡, 위챗, 라인

√ 표본: 응답인원 2,467명

지역별 집계와 관련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등을 제외한 지역별 조사결과는 서울 71%, 인천 14%, 경기 10%, 기타 5%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구분	북미	아시아	아중동	중남미	CIS	대양주	(계)
서울	415명(59%)	642명(76%)	91명(67%)	244명(83%)	85명(77%)	110명(71%)	1,587명(71%)
인천	163명(23%)	90명(11%)	7명(5%)	19명(6%)	9명(8%)	33명(21%)	321명(14%)
경기	82명(12%)	70명(8%)	32명(24%)	20명(7%)	4명(4%)	9명(6%)	217명(10%)
기타	46명(7%)	47명(6%)	5명(4%)	11명(4%)	12명(11%)	2명(1%)	123명(5%)
(계)	706명(100%)	849명(100%)	135명(100%)	294명(100%)	110명(100%)	154명(100%)	2,248명(100%)

*단, 유럽지역은 유럽한인회총연합회의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20일에 인천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재외동포재단 제공)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ь пытается спас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Японией

(Окончан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Кроме того, япон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что в ходе беседы с Юн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поднял тему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етензий к Корее по поводу архипелага Токто (Такэсима) в Восточном (Японском) море и вдобавок сказал, что Сеулу следует соблюдать соглашения 2015 г. по поводу другого очень чувствительного вопроса -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сексуальных рабынь", то есть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в годы оккупации заставляли работать в борделях для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Позже япон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также попросили Юна сня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мпорт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которые введены из-за аварии на АЭС Фукусим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ытались опровергнуть слова япон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и всерьез изворачивались, говоря, что "эти вопросы не обсуждались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ых тем саммита", но отказались отвечать на другой вопрос: "Значит ли это, что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сам заговорил об этом, а вы промолчали?"

Все это в корне меняет восприятие ситуации корейцами. Япония изначально говорила о том, что репараций платить не будет, извиняться не намерена. И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шел на уступки, создав очень косвенную схему выплат, гд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понцы не фигурируют. При этом, как видно, японцы еще "не забыли" "застолбить" и другие позиции по иным крайне болезненным темам.

По логике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и его окружения "пора прекращать жить прошлым". Как сказал один из его помощников: "Японцы извинялись

около 20 раз, сколько можно еще требовать?!" Учитывая, чт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как следует" Токио не извинился ни разу, то возмущение было беспредельным, а рейтинг лидера пошел вниз. Юн же пытается убедить страну, что все это сделано ради будущ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перспекти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ообще "ради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Правда, если верить опросам, те, ради кого это якобы делалось, встретил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егативно. Так, оставшиеся в живых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и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родственников тех, кто уже умер из числа требовавших компенсации, заявили, что им "нужны не деньги, а раскаяние и извинения" и именно от японцев.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хочу у вас спросить: вы кореец или японец, если заключаете такие соглашения?!" - эмоционально спросила в ходе митинга протеста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число тех, кто работал на япо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 годы оккупации.

Более 59 процентов корейцев негативно оценили соглашения, причем доля противников особенно "зашкаливает"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в молодом поколении - от 20 до 29 лет, хотя, казалось бы, именно ради их будущего все уступки и сделаны.

Оппозиция же рвет и мечет, не скупясь на самые жесткие эпитеты. Если вер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 поддерживающих их в этом вопросе членов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то Юн Сок Ёль "предал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ы Японии, а не Кореи" и его дипломатия является "ка-

тастрофой" и "унижением". Пошли разговоры и про импичмент.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15 г. Пак Кын Хе заключила в чем-то схож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ей, но ей это аукнулось двумя годами позже в виде досрочной отставки, и соглашения с японцами стали одной из важных причин, вызвавших гнев корейцев.

Помимо Японии итогам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искренне рады в США,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й страны немедленно и заявили. Теперь для Вашингтона устранены все преград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юза США-РК-Япония и создания аналога НАТО для сдерживания Китая, КНДР и России.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могут же переложить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бремени на союзников, тогда как ранее корейцы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ывались сблизиться с японцам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припоминая их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нежелание раскаиваться. Теперь же, если Юн Сок Ёль сможет продавить свою линию, формироваться "НАТ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ало что может помешать.

Однако перед Юном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оит очень непростая задача - заставить поверить корейцев, что сделанные японцам уступки по весьма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вопросам были нужными и именно "ради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Судя по первой реакции в Корее, большинство в это не верит и требует пересмотр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Если это затянется и народ не поверит лидеру, то коррекция итогов саммита неизбежна, либо это сделает оппозиция, когда придет к власти. Именно так по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отменив в 2017 г.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ак Кын Хе с японц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우리말로 깨닫다]

진짜 타령을 하다

타령은 우리 전통 음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목입니다. 타령은 보통 신나는 음악, 즐거운 음악을 나타냅니다. 정악에서는 아예 '타령'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영산회상곡 중에서 여덟 번째 곡이 바로 '타령'입니다. 영산회상 중에서는 가장 빠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현웅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무가에서 무당이 노래와 춤으로 굿을 하는 것을 타령(妥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타령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타령은 판소리에서 삽입곡을 의미하기도 하고, 민요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사설에 더 집중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령도 매우 많습니다. 방아타령, 새타령, 창부타령, 군밤타령, 각설이 타령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민요 제목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좀 빠르고 신나는 노래에는 타령이라는 제목이 주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령을 들으면 신이 나고 어깨춤이 절로 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말에서 '타령을 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이나 소리로 나타내 자꾸 되풀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타령, 돈타령'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술을 달라고 하거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술타령, 돈타령이라고 한 겁니다. 아마도 타령이라는 노래가 자꾸 입에 붙어서 생긴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 입에 자꾸 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방아타령'이 나옵니다. 가난하였던 백결 선생이 명절에도 먹을 게 없는 가족을 위해서 거문고로 방아 찧는 소리를 닮은 방아타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움과 슬픔이 어우러지는 묘한 감정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아타령에서 미루어 보자면 타령은 슬픔을 즐겁게 이겨내는 현실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방아타령을 듣고 배가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방아타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눈물 나게 고마웠을 겁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즐겁고, 신나게 이겨나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령이라는 것은 이런 치유의 모습이 진짜 타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치유모임인 '짓패 · 희망세상'에서는 타령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군밤타령의 가사를 바꾸어 치유의 타령을 만들었습니다. 후렴은 '얼싸 좋네. 아 좋네. 희망이여. 에헤라 다 좋은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군밤타령에는 '바람이 분다, 봄이 왔네, 달도 밝다'가 각 장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밝은 가사처럼 보이지만 양면을 보이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연평도에서 배를 타는 사람에게 바람은 위험한 바람이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 좋은 돈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한 봄은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겨울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로 밝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 대한 밝은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짓패 · 희망세상'이 만든 치유의 타령인 '희망세상 노래(타령)'는 전체 공연 구성은 희망세상을 이끄는 고정자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가사를 바꾸는 것, 가사와 가락의 조화, 소품의 준비, 악기 연주, 공연의 흥 돌음에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하는 치유의 타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세상 노래는 함께 계획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치유되는 진짜 타령입니다. <다 좋은 세상>을 꿈꾸는 <희망 타령>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세르게이는 전문 교사가 아니지만 현직 의사로서 3년째 동료들과 함께 오하의 유·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의학 수업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직업 진로를 돕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Охинский врач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рдце отдаю детям"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Сердце отдаю детям" прошла 18 марта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состоялся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этот конкурс работников сфер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 финал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вышло 11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них семеро дошли до суперфинала.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были выявлены три победителя по отде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лександр Шаройкин (Поронайск) в номинации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техн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Наталья Крючкова (Невельск) в номинации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Руслан Романен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номинац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ебют".

А диплом абсолютного побед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Сердце отдаю детям" получил охинец Сергей Шабалин. Особенно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ергей 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едагог, а практикующий врач, который вот уже третий год совместно с коллегами помогает ориент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 преподает в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се на базе Дома детства и юношества в Охе.

<크림의 이야기> 전국 행사에 сахалин 학생들이 참여 촉구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학생들을 위한 문화' 기획의 일환으로 <크림의 이야기> 전국 활동을 진행한다고 сахалин주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3월 18일은 크림 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병합된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크림 반도에 대한 시를 낭송하거나, 크림의 몇몇 문화적 명소나 한 곳에 대한 탐방문을 쓰거나, 크림의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сахалин과 쿠릴의 학생들은 '브콘탁테 (ВКонтакте)'에서 해시태그 #крымкдш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게시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30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гласили к участию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Крымские истории»

С 18 марта по 2 апрел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Крымские истор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8 ма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чают Ден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рыма с Россией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прочитать стихотворение о Крыме, написать рассказ о посещении одной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культур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полуострова или сделать рисунок с крымским пейзажем.

Свою работу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нужно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ть во «ВКонтакте» с хештегом #крымкдш. Жюри выберут 30 лучших работ.

'원격 근무'의 장점

러시아 최대 온라인 직업 및 고용주 채용 플랫폼인 헤드헌터(HeadHunter)는 직장인들이 원격 근무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체증에 시달리거나, 출퇴근 시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약 6만 개의 채용 공고가 이러한 원격 형태의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сахалин과 극동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원격 근무의 주요 장점은 출퇴근을 위해 길에서 비움

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응답자 중 1/3이 원격 근무를 통해 그들로서는 수면, 휴식,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7회 국제노동 포럼에서 '헤헤루(hh.ru)'의 미하일 주코브 회장은 원격 근무에 대한 관심은 고용주나 구직자 모두에게 뜨겁다고 밝히며, 인력 부족, 기술의 변화, 경제의 구조적 혁신이 이러한 고용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한 예로 '헤헤루(hh.ru)' 전문가들은 원격 근무의 일자리 요구가 안정적 추세를 유지했다. 최근 한 달간 원격 근무 방식에 대한 선호율은 21%에 달했고, 지속적인 원격 근무 방식의 구직 비율은 7.8%나 증가했다.

Преимущество «удаленки»

Крупнейшая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 по подбору персонала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 России HeadHunter выяснила, что нежелание стоять в пробках и тратить время на дорогу до работы — это одна из причин желания работать удаленн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коло 60 тысяч ваканси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едлагают такой формат занято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эксперты, большая час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читают, что глав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работы на «удаленке» — это экономия времени и денег на дорогу до работы. Так,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третий уверен, что благодаря дистанционному формату у них остается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сон, отдых и общение с близкими.

В ходе VI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труда президент hh.ru Михаил Жу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интерес к удаленному формату работы не угасает как у работодателей, так и соискателей. По его мнению, дефицит кадров, измен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структур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экономики повлияли на такой формат занятости. К примеру, специалисты hh.ru заметили стабильную динамику спроса на вакансии с удаленным заработком — за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доля откликов на удаленный формат работы дошла до 21%. Доля вакансий с возможностью трудиться на постоянной «удаленке» выросла до 7,8%.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